**숨 쉬는 언어, 살아 있는 언어 — 내 마음의 보물섬을 찾아서**

언어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뿐 아니라 표정, 몸짓 등 모든 표현을 포함하며 생노병사의 과정 속에서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감정과 생각의 그릇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언어는 얼마나 깊은 감정과 진실, 생각과 느낌을 담아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담아 낸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과 얼마나 깊은 울림을 만들어 내고 있을까요?

말하는 이는 ‘나를 이해해 줘’, ‘나를 받아줘’ 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듣는 이는 ‘그래서 뭐? 너만 중요하고 나는 안 중요해? 내 생각과 마음은?’ 이라며 반응할 때가 많지 않을까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울림이며 그 울림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은 오고 가도 이해되지 못하고, 감정은 왜곡되며, 진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가려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한계는 인간 언어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기존 언어는 의미가 분절화되고 단절화되어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기본 단위는 ‘브릭(원자)[[1]](#footnote-0)’에 머물러 있지만,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모듈(분자)[[2]](#footnote-1)’로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단위로 바라봐야 합니다.

감응언어학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언어가 가진 울림과 공명을 통해 상대방과 진정으로 ‘감응’하고 소통하는 길을 모색합니다. 특히 AI가 등장한 오늘날, 인간과 기계 사이의 소통은 새로운 차원의 중재와 조율을 필요로 합니다.

이 책은 ‘내 마음의 보물섬’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감성과 이성, 인간과 AI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소통의 길을 탐험하며 우리가 왜 감응언어학[[3]](#footnote-2)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2025년 저자 일동

1. 언어의 ‘브릭’은 원자(atom)처럼 가장 작은 의미 단위 또는 최소 구성 요소. 예를 들어, 단어 하나, 혹은 단어 내 음절이나 음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브릭은 독립적인 의미나 기능을 갖지만, 혼자서는 복잡한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며, 여러 개가 결합하여 더 큰 의미를 만듦. [↑](#footnote-ref-0)
2. 모듈은 브릭들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분자(molecule)’에 비유할 수 있는 언어의 기본 단위. 모듈은 단일 브릭보다 더 복잡하고 유기적인 의미 구조를 갖고 있으며, 문장, 구, 관용구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언어의 기능적, 의미적 완결성을 결정하는 단위로서, 소통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함. [↑](#footnote-ref-1)
3. 언어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말하는 존재와 듣는 존재 사이의 울림과 감정, 태도까지 함께 건네는 언어 방식.

   말의 의미뿐 아니라 말투, 맥락, 의도, 존재의 결까지 포함된 언어 사용을 지칭하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보다 어떻게 말했는가,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가에 초점을 맞춤. 표현이 아니라 존재 간 접촉이자, 정렬의 언어. [↑](#footnote-ref-2)